

해외건설 5대 강국! 글로벌 리더로!



2014 해외건설 · 플랜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11일 개최됐다

해외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14 해외건설 · 플랜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1965년 국내 건설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한 후 수주 누계가 총 6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을 기념하고 해외건설의 미래비전 제시와 해외현장에서 종사하는 국내 건설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해외건설 5대 강국! 글로벌 리더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해외건설협회 최재덕 회장, 해외건설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건설 · 플랜트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51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설비건설협회 회원사로는 성창E&C(주) [대표 김기영, 광주 · 전남] 송재오 사장이 금탑산업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으며, (주)정풍개발 [대표 김성언, 서울] 지창연 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주)정풍개발 곽세준 반장과 한전KPS(주) [대표 최외근, 경기] 최중호 처장이 대통령 표창을, (주)정풍개발 박명호 부장과 (주)세일이엔에스 [대표 심기석, 서울] 송희 전무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개발한 해외건설 홍보



시상자 ·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
(좌로부터 최중호 처장, 정풍개발 김성언 대표, 광세준 반장, 송재오 사장, 이상일 회장, 지창연 이사, 강신구 상임부회장)

브랜드인 K-BUILD(빌드) 선포식도 함께 개최됐다. 'K-BUILD'는 태극문양과 지구를 상징하는 초록색 구를 조합해 만들어졌으며,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해외건설의 글로벌 이념을 표현했다.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은 기념사에서 “내년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해외건설은 7~80년대를 거쳐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기여해왔다”며 “지금까지는 가격과 시공기술력으로 진출했다면 앞으로는 원천기술과 핵심기자재, 금융 등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므로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무한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여행구 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건설업이 해외진출 5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수주 누계 7000억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출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상일 회장은 “오늘 우리 협회 회원사가 대부분 상을 받아 우리업계의 날과 같다”면서 “해외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 선전해주길 바라며,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설비건설업계 정부포상 및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자

훈격	성명	소속	직위	시 · 도 · 회
금탑산업훈장	송재오	성창E&C(주)	사장	광주 · 전남
철탑산업훈장	지창연	(주)정풍개발	이사	서울
대통령표창	곽세준	(주)정풍개발	반장	서울
	최중호	한전KPS(주)	처장	경기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박명호	(주)정풍개발	부장	서울
	송희	(주)세일이엔에스	전무	서울

영광의 해외건설 · 플랜트 설비인



송재오 성창E&C(주) 사장

훈격 : 금탑산업훈장

주요공적

- 46년간 플랜트사업에 참여, 국내 · 외 플랜트 부분 발전에 일익 담당
- 해외 공사의 성공적 수행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 향상

송재오 사장은 건설인으로 46년간 플랜트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 외 플랜트 부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국내 · 외 주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플랜트 건설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플랜트 신건설 기술 개발과 자립화로 기술 향상에 노력했으며, 사업관리 · 품질 · 안전관리를 통한 PM 및 CM체계의 정착과 건설기술의 해외수출, 해외수주를 통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

1978년 (주)대우건설에 입사해 국내 최초로 EPC 턴키로 수행한 울산화력 4,5,6호기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여 적기에 준공했고, 미국 United Engineers에 QA/QC 및 Project Control 연수를 받았다. 또한 해외사업 총괄관리를 위해 영국 런던지사에서 Engineering, Procurement 를 5년 6개월 동안 수행하고 리비아 트리폴리 병원 현장소장 근무 후 90년 귀국해 발전사업, 원자력발전사업, 해외플랜트사업에 관장했다. 또한 (주)한양 대표이사 제직 시 국내플랜트 및 해외사업분야의 사업 조직을 만들었으며 인천 샬트론, 평택 탱크터미널 등을 수주했다.

현재 성창E&C(주) 해외담당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카타르, 쿠웨이트, 알제리,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국내 · 외 EPC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성공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측면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우디 아람코와 직접 EPC로 계약하여 투철한 현장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한편 Petrofac, Siemens, JGC, Chiyoda 등 직접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수주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창연 (주)정풍개발 이사

훈격 : 철탑산업훈장

주요공적

- 27년간 국내외 플랜트 현장에서 성공적인 공사 수행
- 무사고 · 무재해 · 공기단축에 따른 원가절감 실현

(주)정풍개발 지창연 이사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창의적인 정신으로 USA 괌 카브라스 발전소, 필리핀 말라야 화력 발전소, 아라미니 · 알제리 · 사우디 플랜트 현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국내의 부천 · 구미 열병합 발전소에 근무하면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통해 국내의 부족한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해 회사의 성장과 대외적인 한국 플랜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아르메니아와 알제리 등 오지현장에서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무재해 · 무사고 현장으로 공사를 수행했고, 한국인 및 제3국인 직원과 근로자들의 통합적인 관리로 노무관리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했다.

1995년부터 해외공사를 수행하면서 괌 지역 플랜트에서는 현지인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기술, 작업방법, 상호간 의사소통 및 협동정신 등을 지도해 가며 공정을 진행했으며, 무사고 · 무재해 · 공기단축에 따른 원가절감을 실현함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줬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Yanbu 지역에서 발주처인 Marafiq #5&6호기의 Stream Turbine 2기를 준공했고, 이어 Stream Turbine 3기를 연속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열사의 악조건 기후 상황에서도 공기준수 뿐만 아니라 무재해 달성과 성공적인 공사 수행으로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끊임없는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관리 역량과 공사 기술력 선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및 축적된 기술력과 공사관리 시스템을 후진들에게 교육 · 전파시킴으로써 공사수행능력 향상 및 상호 협력증진을 통해 기술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건설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가교 역할



2014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협·단체 부문 표창을 수상하는 이상일 회장(사진 우)

건설경제신문사와 건설외주협의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후원한 '2014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충모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김관주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본부장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및 수상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협·단체 부문 표창을 받았으며, 협회 회원사 중에는 (주)건우이앤씨[대표 임철연]가 국토교통부장관 협력부문 표창을, (주)삼진개발[대표 손동철]과 (주)세보엠이씨[대표 김우영]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협력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에서 이상일 회장과 수상 회사사 기념촬영
[사진 좌로부터, (주)세보엠이씨 김우영 대표,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주)건우이앤씨 임철연 대표, (주)삼진개발 손동철 대표]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협·단체 부문 표창 —
대한설비건설협회

합리적 공사비 산정·기술향상 활약



이상일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동반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가 출범시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 참여해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저가하도급

심사 기준 △공생발전을 위한 계약예규 등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정부의 '건설산업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마련

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기계설비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해외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 등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건설기술 및 공사품질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에도 설비건설협회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기계설비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추진한 결과 89개 항목의 표준품셈이 개정되거나 신설됐다. 공사현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부실시공 방지, 안전관리 도모에도 노력해 왔다.

설비건설협회는 이와 함께 기술인 양성 및 노사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에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기계설비업계에 필요한 설비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두원공과대학교와 함께 인문계열 출신도 전문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K-MOVE 스쿨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도 산학협력을 통해 기계설비 학사과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및 최고전문가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부족한 건설인력 공급에 나서는 한편, 전국 설비관련학과 우수 졸업생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상일 회장은 “협회가 그동안 상생협력에 노력한 결과 이 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말뿐이 아닌 진정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력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협력부문 표창 —
(주)건우이앤씨

최우수 협력사로 호평... 플랜트분야 두각



임철연 대표

건우이앤씨(대표 임철연)는 지난 1997년 설립 이후 18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계설비, 소방설비 전문업체다. 아파트와 공장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해 풍부한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화력발전과

하수처리 등 플랜트 분야에서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최고의 품질을 지켜오면서 경남기업과 두산건설, 풍림산업 등 국내 유수의 기업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기업과 풍림산업으로부터는 이미 여러 차례 최우수 및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과 함께 화력발전기 설치공사 등 플랜트 분야에 진출하며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 대우산업개발, CJ엔터테인먼트 등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더욱 폭넓은 시공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건우이앤씨는 앞으로도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분야 및 거래처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협력부문 표창 -
(주)세보엠이씨

기계설비 시공능력 9년 연속 1위... 기술 선진화 앞장



김우영 대표

1978년 창립한 세보엠이씨(대표 김우영)는 기계설비 분야 수위 업체다. 기계설비 시공능력 평가에서 2005년부터 9년 연속 전국 1위, 2003년부터 11년간 서울 1위를 지킨 간판타자다. 기술력이 남다르다.

업계 최초로 CAD/CAM 덕트시스템 자동화 시설을 도입했고 PFP공법도 국내 최초로 접목했다. ISO 9001, 6시그마, KOSHA 18001 등의 각종 인증을 취득할 정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계설비 기술 선진화를 이끌었다.

삼성, SK, 현대, 대림, 두산중공업 등 우수건설사들의 우수협력사로 선정될 만큼 탁월한 품질·안전·시공 노하우를 뽐냈다.

베트남·인도·필리핀·중국법인에 더해 미국 오스틴에도 사무소를 두고 산업계의 해외시장 개척도 선도하고 있다.

나눔 활동도 남다르다. 1999년 발족한 사내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모임인 '세보한마음봉사단'을 구심점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단체 후원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인도 뭍바이 등 해외에서도 해비타트 등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두원공대, 수원과학대 등과의 산학협동 협정 체결과 다각적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도 한몫하고 있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협력부문 표창 -
(주)삼진개발

탁월한 기술력... 매출 10년새 25배 경증



손동철 대표

1996년 10월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로 출발한 삼진개발(대표 손동철)은 아파트 기계설비 시공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1등 설비 업체의 도약을 꿈꾸는 기업이다.

삼진개발은 설립 당해 연도 12월에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면서 아파트 시공을 중심으로 부대시설 등 여러 부문의 공사를 맡아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이를 발판으로 2003년에는 매출액 6억원 달성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매출액 150억원을 돌파하면서 10

년 만에 매출액이 25배나 뛰는 급성장을 이뤘다.

2003년의 경우 삼진개발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책임감과 높은 기술력으로 광주광역시 선정 우수시공아파트 지정에 기여해 감사패를 받았다. 이후 2013년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사 완공으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내 감사장을 받았다. 이로써 삼진개발은 시공,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손동철 대표는 "기계설비 외 소방시설공사 면허를 취득해 더욱 포괄적이고 우수한 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사의 경영진과 전 직원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LH 기계직 친목 도모 및 조직발전 기원



LH 기계상조회는 지난 11월 15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상일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계상조회(회장 이상호, LH공사 임대자산관리처장)는 지난 11월 15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계직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비롯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후에 개최된 정기총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는 LH 통합 이후 5년 만에 함께 만나는 자리로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격려를 북돋워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상호 회장은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시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기계직은 특히 주변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해 왔다”면서 “말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LH, 희망된 LH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주우설비회 유철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 시간이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이어주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회뿐만 아니라 LH 조직 내에서 매우 소중하고 귀한 자산이므로, LH라는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지속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은 축사를 통해 “LH공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특히 공동주택의 고품질과 초고층화는 기계설비의 비약적인 성장에 발맞춰 살아 숨쉬는 생명의 건축물로 발전했으며, 이는 LH공사 기계직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일 회장은 “지난 20년간 분리발주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노력해주신 기계직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 기계상조회는 기계직 발전에 헌신한 김승구 처장, 한송주 처장, 정석래 처장과 임헌돈 퇴직임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LH공사 기계상조회는 지난 1989년 한국주택공사 기계직 임직원들 간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창립됐으며, 지난 2009년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양사의 기계직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온라인 취업지원시스템 ‘건설워크넷’ 오픈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헌판식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업무 순시

70만 건설기술자의 경력 데이터베이스(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를 한데 모아 놓은 온라인 취업지원시스템인 ‘건설워크넷’(<http://cworknet.koceia.or.kr>)이 지난 11월 28일 공식 오픈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건설관련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취업지원 시스템인 ‘건설워크넷’을 구축 완료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보센터는 건설기술자들의 정보를 모아 건설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장, 이명식 대한측량협회장, 김석원 건설기술교육원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건설기술자들에게 새로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성공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협력기로 했다.

건설워크넷은 한 달반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안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하여 건설관련 업체에서는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 필요한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에게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입사 제의를 하고, 건설기술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사항 등을 기존의 경력DB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력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워크넷은 기술자 경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설고용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DB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1989년부터 수집한 70만 건설기술자들의 경력·학력·자격·근무처 등 신고받아 관리 중인 자료 약 2억 개가 저장되어 있으며, 건설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하므로써 실질적인 취업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 중인 건설기술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설워크넷에서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일자리 정보센터를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로 삼고 활발한 해외진출 확대와 건설고용시장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